논어 14편 헌문 21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其言之不怍，則爲之也難！」

독음 · 자왈 기언지부작 즉위지야난

쉬운 풀이(요약) · 큰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말을 이루기는 어렵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其 그 기 / 言 말씀 언 언

之 갈 지 / 不 아닐 불 / 怍 부끄러울 작 작 / 則 곧 즉

爲 할 위 / 也 어조사 야 / 難 어려울 난 난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